



# 중앙일보



joins.com

## 워드 , 한국의 잠든 효심을 깨우다.

2006. 4. 10

“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다. 어머니는 제게 큰 영감을 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셨다.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.”

하인스 워드는 8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펄벅 재단 주최로 열린 ‘혼혈 아동 희망 나누기’ 행사에서 어머니 김영희(59)씨에 대한 깊은 효심(孝心)을 또 한번 나타냈다.

워드는 100여 명의 혼혈 아동 및 부모들에게 “우리 어머니께서도 여기 계신 분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”이라며 “어머니의 이름을 붙인 장학 재단을 설립해 한국 내 혼혈 아동을 돕겠다.”고 약속했다.

행사에 참여했던 혼혈인 가수 인순이는 “워드가 더욱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의 지극한 효성 때문인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‘효자’ 워드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.



‘효’의 가치가 급속히 퇴조하고 있는 요즘 세대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이 한국계 혼혈인이 보여주고 있는 ‘어머니 사랑’은 우리에게 전통적 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.

노무현 대통령은 “(워드가)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(효의)교과서”라며 “효자상을 주고 싶다.”고 극찬했다.

미 프로 풋볼리그(NFL) 슈퍼볼에서 최우수선수(MVP)에 등극했을 때도 워드는 모든 공로를 어머니에게 돌리며 눈물을 글썽였다. 워드의 어머니 찬양은 한국에서도 이어졌다.

- 중략 -

이번 워드의 한국 방문은 혼혈인 이슈와 함께 ‘효의 의미’라는 또 다른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.

